

‘尹 탄핵 지지’ 가수 공연 취소... “그럼 광주서 하자”

구미시,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 ‘정치 선동 금지서약 서명’ 등 요구 강 시장, SNS 통해 “광주로 초대” 이승환 “민주성지 광주 공연 기대”

경북 구미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한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하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개최를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 음악인·예술협회 등은 구미시의 공연장 대관 취소에 “가수가 정치적 희생양이 되선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강기정 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이승환 공연 취소를 언급하며 “그럼 광주에서 합시다. 이승환 가수를 광주로 초대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계엄이 얼마나 황당하고 엉터리였으면 K-팝을 응원하는 청소년들이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섰겠는가”라며 “우리를 지지하지 않게 해주는 에너지, 바로 K-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승환은 페이스북에 강 시장의 글을 공유하며 “감사하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의 공연을 기대한다”고 즉각 화답했다.

앞서 구미시는 이날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대관’을 보수세력 충돌 및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공연 이틀 전에 일방적 취소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20일 이승환 씨 측에 안전 인력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지만 ‘날인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승환의) 나이가 60세인데 전국 공연이 있으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과 시민 분열에 대해 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구미지역 시민단체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김 시장의 발언은 이승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전날인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촛불문화제’ 무대에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승환은 ‘구미시의 서약서는 부당한 요구’라며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예고했다. 그는 “지자체는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나 진짜 이유는 ‘정치 선동 서약서 날인 거부’였다고 본다”며 “35주년 콘서트는 정치 목적의 행사가 아니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엄중한 문제다. 우리 사회 수준을 다시 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지적하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예술인들은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이 침해됐다”며 구미시의 사과를 촉구했다.

전남연예예술인총연합회 영광지회 관계자는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정치적 언행 금지’ 조항을 담은 서약서를 제시하는 건 난생 처음 본 풍경”이라며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

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왜 항상 예술인들이 정치의 표적·희생양이 돼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미시의 결정이 앞으로 또 다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명분이 될까 두렵다. 시민 분열을 자초한 구미시는 예술인들에 사과해야 한다”며 “이승환 콘서트가 광주·전남에서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기회로 ‘민주화 성지’ 호남에

서 꼭 밭길 바란다. 지역 예술인도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시장의 제안 이후 이날까지 공식적으로 광주지역 콘서트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승환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태로, 조만간 관련 협의를 논의해 가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K-컬처와 정치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가수 측으

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긍정적 회신이 온 만큼 조만간 정식 대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 정국 이후 시민 정서·경기 체감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번 콘서트가 개최되면 소비 촉진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연말연초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 양림내 광주 남구청장과 남구 기독교 교단협의회, 양림동 주민 등이 지난 24일 남구 양림동 일원에서 열린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에서 산타복장을 하고 시승마차와 함께 거리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과 남구 기독교 교단협의회, 양림동 주민 등이 지난 24일 남구 양림동 일원에서 열린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에서 산타복장을 하고 시승마차와 함께 거리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김영록 지사 “내년 ‘더 위대한 전남’ 힘 모으자”

올해 마지막 실·국 정책회의 긴급민생 지원 1185억 투입



김영록(사진) 전남도지사는 “올 한해 다양한 분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고 최근 주요 경제지표도 중위권 수준에 오른 만큼, 내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더 위대한 전라남도’를 향해 힘을 모으자”고 강

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2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올해 마지막 실·국 정책회의를 열고 한해 실·국별 도정 성과를 일일이 열거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도정성과는 △전남 통합대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 합의 △1조4000억원

규모 여수 묘도 LNG터미널 착공 △K-관광닷 올린 2024~2026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 △벼멸구 등 농업재해 1800억원 인정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추진 발표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전라선 고속화 철도사업 예타 대상 선정 △강진·완도 고속도로 예타 통과 등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 경제지표에서도 중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남

의 가구소득은 6609만원으로 전국 8위, 1인당 개인소득은 2375만원으로 9위, 지역내총생산(GRDP) 96조2000억원으로 8위에 올랐다.

김 지사는 “주요 지표가 좋아졌음에도 역외유출은 32조원대로 심각하다. 수도권 역외유입이 70조원이나 되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문제”라며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은 역사·문화·전통 유산이 풍부하고, 발전잠재력도 충분하다”며 “내년에는 분야별·실국별로 어떻게 더 발전시

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비전을 세워 대도약을 실현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긴급민생대책과 관련해선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광업, 농어민, 취약계층 등을 위해 23개 사업에 1185억원을 투입키로 한 지원책을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분야별로 잘 안내하고 신속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합청렴도에 대해선 “실국별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내년엔 2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고, 특히 도민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준비하자”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지속가능한 食

우리 먹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올까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망을 잇고,
K-푸드 수출시장과 식품산업의 인프라를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아가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촌과 어촌,
우리 식탁을 지속가능하게 연결합니다.

지속가능한 씨앗을 뿌리다 지속가능한 그물을 거두다 지속가능한 식탁을 차리다